관리도까지 광역상수도 첫발

군산시, 장자도서 관리도까지 해저관로 1.4km 매설

2026년이 되면 용담댐에서 공급되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관리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산시는 28일 오는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92억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자해 장자도에서 관리도까지 해저관로 1.4km를 포함한 상수관로 3.7km를 매설하고 가압장, 배수지 등 수도시설을 설치한다.

이는 고질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는 관리도 지역의 물 부족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군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관리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반영,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결과다.

56세대 84명이 거주하고 있는 관리도는 그동안 지하수와 해수 담수화에 의지해왔으며, 가뭄 등 물 부족시 생활용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식수난이 해결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이 증진되고 지역관광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이종혁 수도사업소장은 "육지에 비해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도서 지역에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식수원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더 이상 식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경주시와 함께 '서동 · 선화 제야의 타종식'

31일 중앙체육공원서 익산 · 경주시 이원 중계로 진행

코로나 이후 3년만에 서동·선화의 도시에서 제야의 종소리가 함께 울린다.

익산시는 경주시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동·서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이원 중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9시부터 중앙체육공원에서 타종행사를 갖는다.

특히 자매도시인 익산시와 경주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22 제야의 종 타종식을 영호남 도시의 화합을 기리는 이색 행사와 더불어 진행한다.

익산시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관광재단, 경주문화재단, 익산문화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백제 서동왕자와 신라 선화공주가 맺어지는 서동설화를 바탕으로 맺어진 두 도시가 새해 소망과 우호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합동 타종 행사는 화합을 기원하여 익산시장과 경주시장의 덕담과 익산·경주시민 합창단 합동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31일 오후 9시부터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식전 공연으로 지역문화예술공연이 열린다. 새해 소망 풍선 나눔 행사, 문화원 취타대와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정헌율 익산시장,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과 국회의원 등의 인사에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익산시민의 소망 인터뷰 영상을 방영한다.

익산·경주시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양 도시의 이원 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11시 30분부터 익산시와 경주시 간 만남의 시간으로 양 도시 시장의 덕담과 특산품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어 200인의 익산시민 대합창회가 '신라의 달밤'을 선창하고, 이어 경주시민합창단이 '고향역'을 부를 예정이다. 마무리로 두 합창단이 함께 '희망의 나라로'를 합창하며 영호남 도시의 화합을 위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양 도시 간의 화합과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타종식에는 양 도시가 동시에 첫 3타를 친 뒤 두 번째 3타는 양 도시가 번갈아 치고 이후 3타씩 9번은 동시에 타종할 예정이다. 타종이 끝나면 양 도시의 합창단이 동시에 합창한 뒤 새해맞이 불꽃놀이가 이어진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발달장애지원 전국 '우수'

익산시가 정부로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명실상부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직업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넘어 창업지원 시스템 인프라 구축까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장애인 자립 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8일 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장애인서비스평가'에서 발달장애인지원 분야에 (사)새소망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대표 황의성)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장애인복지발전 및 정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새소망센터는 지난해 2월 제공기관에 선정돼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및 건강관리, 문화·예술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양육 부담감소와 서비스 이용 장애인들의 자립 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취미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이용자에게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참여 접점을 확대해 가려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황의성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비장애인보다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합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장애인의 원활한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올해보다 46억이 증가한 205억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해 전자바우처를 이용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금강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저녁 10시까지 도서관 열어

금강도서관, 내년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시행기관 선정

군산시 금강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28일 안정적·지속적으로 도서관 개관시간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개 도서관(군산시립·늘푸른·설림)에 이어 올해 금강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도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비 6,800만원을 지원받아 평일(화~금) 정규 개관시간인 오후 6시 이후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지역 주민을 위해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

주말(토~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기존과 같으며,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

이로써 금강도서관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극대화해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독서문화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귀영 시립도서관장은 "앞으로도 도서관 운영 인프라 확충 등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도서관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행안부 2차 특별교부세 42억 확보

익산시가 지역 정치권과 협업으로 특별교부세를 대거 확보해 시정 현안 해결과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8일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2차 특별교부세로 지역현안 4개사업 26억원과 재난안전 2개 사업 16억 등 총 6개사업 4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부 지역현안 사업으로는 △익산성당포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10억원 △서동시장 문화공간 조성사업 4억원 △익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사업 7억원 △금마축구공원 기능보강 사업 5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시설 노후화를 겪고 있는 익산유산호스텔과 금마축구공원의 기능보강으로 관광문화 생활체육 인프라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전수문화계승발전을 위한 익산성당포구농악 농악전수교육관 건립과 시장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서동시장 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도시 토대 마련에 탄력을 받는다.

재난안전 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부도로 염수분사장치 설치에 10억이 투입돼 폭설 예방 대응을 펼치고 △황등면 보삼마을 우수관로 정비사업 6억이 확정돼 주민 생활 개선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김수흥·한병도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면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민들의 일상에 필요한 현안사업과 재난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과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매년 상·하반기 수요조사(지역현안·재난안전)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기교부된다. 앞서 시는 61억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삼동회후원회, 나눔 곳간에 이불 100채 기탁

삼동회후원회(회장 홍성철)는 28일 익산시청을 방문하여 다이로움 나눔곳간에 이불 100채(8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후원된 이불은 극세사 이불로 나눔곳간을 이용하는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홍성철 삼동회후원회장은 "한파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했다"며 "지원해드린 이불을 덮고 숙면을 취하셔서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동회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소속된 후원회로 2004년 익산지역 인사 30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53명의 회원으로 구성, 삼동회 산하 시설 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4-H연합회 지역 농산물 복지시설 기부

군산시는 군산시4-H연합회(회장 김홍순)가 지역농가 살리기와 농산물 홍보를 위해 지난 26일 모세스 영아원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쌀, 보리, 잡곡 등 청년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필요 물품을 지역 복지시설인 모세스 영아원에 전달하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함께 4-H 활동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

김홍순 군산시4-H연합회 회장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어려워지는 농업사회에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코로나19와 지속된 한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4-H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농가와 시민들에게 농촌정착과 농촌 활력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4-H 청년농업인이 1년 동안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기부활동을 펼친 군산시4-H연합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